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

12/29 월요일

아침의 누림요일 4:13-15

13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압니다.

14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지금 또 증언합니다.

15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사 9:6

6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셨는데 통치가 그분의 어깨 위에 놓였고 그분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연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화평의 왕이라 불리리라.

요 14:9

9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이여,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분과 함께 있었는데도, 그대가 나를 알지 못하십니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하십니까?”

요 5:43

43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여러분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온다면, 여러분은 그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요 10:30

30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요일 2:23

23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마다 아버지 또한 없으며,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 또한 있습니다.

고후 3:17

17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원수가 사용하는 한 가지 간교한 방법은 ...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위한 주관적인 분이심을 부정하고 신성한 삼일성을 그저 종교와 관련된 객관적인 교리로 제시하는 것이다. ... 그러나 성경은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만이 아니심을 계시한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관적인 분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신다. 매일매일, 심지어 매시간 우리는 그분을 이런 방식으로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요한일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1, 31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성경은 삼일 하나님께서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통과하신 후,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으로 완결되시어 우리 영 안에 거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계시한다. 우리 사람의 영 안에 거하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놀라운 영으로 인해 할렐루야!

사람은 라디오에 비유될 수 있다. 그러한 라디오에는 전파를 받을 수 있는 수신기가 있다. 라디오가 주파수에 올바르게 맞추어지면 음악이 재생될 것이다. 우리 사람은 라디오와 같으며 수신기는 사람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수신기가 올바르게 맞추어지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음악을 누리게 된다. 이것은 지금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의 거듭난 사람의 영 안에 거하시는 삼일 하나님에 대한 누림을 보여 주는 그림이다. ...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을 만지고 누리고 체험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에 의해서이다.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는 우리의 주님께서 오늘날 단지 삼일 하나님의 일부분이 아니라,

삼일 하나님 전체의 체현 곧 아버지와 함께하시고 그 영이신 아들이심을 강하게 증언한다. 오늘날 우리의 체험에서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하시는 아들의 실재이신 그 영으로서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그분께서 이렇게 놀라운 분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교리나 헛된 종교나 의미 없는 의식에 주의하지 않는다. 우리의 관심사는 삼일 하나님을 매일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다.

우리는 음식을 먹는 것을 예로 들어, 누리고 체험하는 방식으로 삼일 하나님에 관한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우리가 어떤 음식을 더 먹을수록 그 음식에 대해 더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식은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삼일 하나님을 누리고 체험함으로써 그분을 알게 된다. 삼일 하나님을 단지 교리를 통해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분을 누리고 체험함으로써 그분을 알 수 있다.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께서 한 분이시라고 가르친다. 이사야서 9 장 6 절은 한 아들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영원하신 아버지라 불리리라고 말한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과 일치한다. 주 예수님은 아들이신 그분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다(요 5:43). 주님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분께서 아들이시자 아버지이시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분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아들이시라는 사실에 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4 장에서 주님은 또한 우리가 그분을 보았다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9 절). 더 나아가 같은 장에서 주님은 그분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그분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다(10:11 절). 따라서

그분은 요한복음 10 장 30 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께서 하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시인할 때 우리에게 또한 아버지께서 계신다(요일 2:23). 더욱이 주님은 또한 그영이시다(고후 3:17).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에게 또한 아버지와 그 영께서 계신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가? 분명히 그렇다. 또한 아버지와 그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가? 분명히 우리 안에 아버지뿐 아니라 그 영도 계신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께서 모두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몇 분께서 계시는가? 체험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오직 한 분께서 계신다는 것을 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분은 삼일 하나님,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시다.(요한일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1, 312-313 쪽, 메시지 21, 206-20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11

12/30 화요일

아침의 누림

요일 3:19-21

19 이것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질 것입니다.

20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셔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21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지며,

히 8:10-11

10 그날들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다음과 같다. 주의 말이다. 나는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안에 넣어 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새길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11 그들 각 사람은 결코 자기 나라 시민과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히 10:16

16 “그날들 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은 다음과 같다. 주의 말이다. 나는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에 넣어 주고, 그들의 생각에 그것들을 새길 것이다.”

마 28:19

19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엡 3:16

16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계 1:4-5

4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께서, 또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께서,

5 또 신실한 증인이시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죄들에서 해방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요한일서 3 장 21 절에서 요한의 말은 하나님을 매우 주관적인 방식으로 아는 것에 관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우주를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할지 모르지만, 이 절에서 요한은 우리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에 관하여 말한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대신에, 우리에게 실지적이신 하나님에 관해 말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제한받지 않으시며 우리의 이해력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우리 마음 안에 계시실 만큼 작은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험이 되실 때, 그분은 단지 우주적으로 광대한 분으로서 보좌에 계시는 분만이 아니라 더욱 우리 마음 안에 사는 분이 되신다.

신약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개인적인 영역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광대한 우주 안에 계시는 분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작은 마음 안에 계시는 분으로 알아 간다.

신약의 관심사는 우리가 우리 존재 안에 거하러 오신 삼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분은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며 우리 마음의 모든 속부분들 안으로 확장되기를 갈망하신다(비교 엡 3:17). 따라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요한일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9, 282-28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일서 3 장 20 절에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더 크시다고 말하는 대신에 ...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시다고 말한다.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체험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은 평온한가? ...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종교적이고 객관적일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와 우리의 양심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크시고 전능하시며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 안에서 우리에게

실지적인 분이 되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양심 때문에 우리에게 불편한 느낌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불편하신 무언가가 있으심을 의미한다. ...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면서 나는 종종 왜 하나님께서 내 일상생활의 세부적인 일까지 일일이 신경 쓰시는지를 의아하게 여겨왔다. 예를 들어 ... 만일 내가 아내에게 얼굴을 찌푸린다면, 그분은 나의 양심을 불편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이런 문제로 그분께 따지려고 하면, 내 양심 안에 계신 그분은 나에게 동의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방식에 대해 보여 주는 한 예이다.

우리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 갈 때,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 아니라 작은 분이 되신다. 어떤 형제는 하나님께 따지면서 어떤 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양심을 불편하게 하시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 형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겠다고 해 보자. “왜 제 양심은 제 아내에 관한 문제로 저를 불편하게 합니까? 아내는 틀렸고 저는 옳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내이고, 저는 다툼을 피하려고 계속 애써 왔습니다. ... 그런데 왜 양심은 제 안의 느낌을 문제 삼아 저를 불편하게 합니까? 이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가 하나님께 아무리 따지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편을 들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삼일 하나님을 아는 신약의 방식은 개인적이고 상세하며 체험적이다. 신약의 방식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 안에 계신 분으로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적으로 아는 길이 얼마나 보배로운가!

하나님께는 돌보고 처리하셔야 할 일이 수없이 많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우리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에 관여하려고 하시는가? 때때로 우리는 그 이유가 궁금할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생활의 사소한 일들까지도 관심하신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어떤 형제가 자신의 아내를 대하는 내적태도에도 관심을 가지실 수 있다. 이와 같은 일은 너무나 사소해서, 들여다보려면 신성한 확대경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에도 관심을 갖는 분이시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우리의 양심이 그 일들로 인해 불편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양심이 평온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신성한 통치를 대표하는 양심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큰일에서뿐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이러한 방식으로 아는 것이 바로 그분을 체험적이고 실지적으로 아는 것이다. (요한일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9, 283-28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5, 13 장

12/31 수요일

아침의 누림

살전 1:1-10 (1,3-6)

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 우리는 여러분 모두에 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4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님들, 우리는 여러분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5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이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는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6 또한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7 그래서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이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8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로 울려 퍼져 나갔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도 각처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하여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9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우리에게 관한 일, 곧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에게로 들어갔는지, 또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알려 주기 때문이며,

10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아들, 곧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들에서 오시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기다리신지에 대하여 알려 주기 때문입니다.

고전 1:2

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에게와,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편지합니다.

어떤 이들은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관해 읽으면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여러분의 주장에 따르면, 데살로니가전서 1 장 1 절은 교회가 삼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렇습니다. 이 절은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아들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그 영에 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습니다. 만일 이 절이 삼일 하나님에 대해 말한다면, 그 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이 기록된 것만큼 중요하거나 그 이상으로 중요한 여러 사례가 있는데, 이 절은 그 여러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한다. 성도들을 접촉할 때 종종 우리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다 그만둘지 모른다. 이렇게 하지 않은 말이 우리가 그들에게 한 말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1 장 1 절에서 언급되신 하나님은 삼일 하나님이심이 확실하다. 우리는 이것을 바울이 삼일성의 첫째이신 아버지를 가장 먼저 언급한 사실을 통해 안다. 언제든지 첫째께서 계시할 때 또한 둘째인 아들과 셋째인 그 영께서 계시는 것이다. 바울이 아버지를 언급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가 삼일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명백한 표시이다. 더욱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그 영을 함축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모두 그 영을 함축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1 장 1 절에 그 영께서 함축되어 계심을 이해할 수 있다.(데살로니가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7, 70-7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또한 그 영 안에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따라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1 장 1 절에 삼일 하나님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본다. 이 절은 교회가 삼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교회가 하나님이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간단한 문제이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선언하는 것은 훨씬 더 깊고 심오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특정한 사람에게 속해 있다고 말하는 것과 그 사람 안에 있다고 선언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다. 사람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어떤 사람에게 속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말 그대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회가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오직 유기적이고도 생명에 속한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생명의 방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충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방식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 계신다. 더욱이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 유기적이고도 생명에 속한 방식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가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

교회가 단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으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야 하고, 우리는 그분과 생명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님과 예수님이 되셔야 한다.

신약에는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는 말씀이 없다.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데살로니가전서 1 장 1 절은 우리에게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지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이 절은 교회가 삼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계시하기 때문이다. 성경에 따르면, 교회가 다만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일은 없다. 오히려 교회는 삼일 하나님 안에 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삼일 하나님 사이의 차이를 주의 깊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은 그분을 아직 과정을 거치지 않으신 분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삼일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의미한다. 창세기 1 장 1 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한다. 이 절에서 우리는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즉 아버지와 아들과 영을 볼 수 없다. 그러나 신약에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계시를 본다. (데살로니가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7, 71-7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7

01/01 목요일

아침의 누림

요 1:12-13

12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13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요 15:1, 4-5

1 “나는 참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4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5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 3:15

15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살후 1:1

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고전 1:30

30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었습니다.

고전 6:17

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엡 1:5

5 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 장 1 절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한다.
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모두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교회에게 쓴 것이며, 이
교회는 그 지방에 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이 한 지방에 있는
교회는 믿는 이들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 지방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나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 존재와
그분께서 하신 모든 일에서 그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한
지방에 있는 교회는 사람들(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속하지만, 유기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고 또한 주님 안에 있다. 신성한 생명과 본성
안에서의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은 믿는 이들이

교회생활을 위해 거룩한 생활을 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 이러한 생활이 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후서의 주제이다. (데살로니가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 12-1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믿는 이들과 삼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강조하는 것은 바울의 글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특징이다. ...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에 대한 강조는 바울의 글의 한 가지
두드러진 특성이다. ... 데살로니가전서 1 장
1 절이 기록된 방식은 단순하지만, 이 절 안에는
유기적인 연결에 대한 바울의 독특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절에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대해 언급한다.
여기에서 전치사 ‘안에’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
전치사는 교회가 삼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명시한다. 교회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 즉 믿는 이들은 삼일 하나님 안에 있다.
한편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다.

바울은 교회가 단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창조된 것은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 안에서였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우리가
창조된 것은 하나님 밖에서였다. 이것은 우리가
창조될 때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거나 어떤
생명의 관계도 맺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대신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만 있었다. ... 그러므로 창조와
관련된 관계는 있었지만 생명에 속한 관계는
없었다. ...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다. 우리에게는 단지 창조된
생명, 곧 타고난 인간 생명만 있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을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남으로써 우리는
삼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결 안으로 이끌렸다.
우리는 거듭났을 때 즉 다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지금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창조주나 우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곧 우리를 낳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저 우리의 창조주만이
아니시다. 그분은 또한 우리를 낳으신 분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거듭남을 통해
데살로니가의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로마서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루어진 구성체이다. ... 죄인들이 세속적인
조직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로만 구성된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분의 아들들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 우리는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미리 정해졌다(엡 1:5).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내적으로
감동시키셨다. 그러자 우리는 회개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받아들였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 요소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다. 이러한 이유로
데살로니가전서 1 장 1 절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한다.(데살로니가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 13-1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

01/02 금요일

아침의 누림

요 14:6-11 (6,10-11);

6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실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7 여러분이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습니다.”

8 빌립이 예수님께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라고 하니,

9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이여,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분과 함께 있었는데도, 그대가 나를 알지 못하십니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하십니까?

10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그대가 믿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11 여러분은 나를 믿으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하는 일들 때문에라도 믿으십시오.

요 10:38

38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한다면, 여러분이 나를 믿지는 않더라도 그 일은 믿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고, 또 계속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롬 8:11

11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고전 15:45b

45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오늘날 어떤 근본주의 성경 교사들은 사실상 삼신론적인데,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 같다. 이 교사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구별되신다고 말할 뿐 아니라, 그분들이 분리되어 계신다고 말하기도 한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께서 구별되신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분리되어 계신다고는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아들을 분리할 수 없고, 그 영에게서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셋 모두 동시 존재하시며 상호 내재하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에서 아들은 그분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그분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다(10:38, 14:10-11).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분리될 수 있는가? 또 주 예수님은 그분과 아버지가 하나이시라고 말씀하셨다(10:30).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께서 비록 구별되시기는 해도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더 전진된 증거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구별되시지만 분리되지는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셋이시면서 하나이시기 때문이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 권, 신약과 하나님의 신약 경륜, 하나님, 메시지 3, 5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아버지와 아들께서 하나이시지만(요 10:30) 그분들 사이에는 여전히 ‘나’와 ‘아버지’의 구분이 있다. 우리는 이 점을 경시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점을 경시한다면 양태론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양태론자들은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세 시기에 세 번 나타나시고, 그 세 번의 나타나심은 동시에 서로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셋,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께서 동시에 존재하실 뿐 아니라 서로 안에 존재하신다는 것을 계시한다. 그러므로 셋,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하나이시다. 그분들은 한 하나님이다. 그러나 이 한 하나님은 또한 셋,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언제 하나이신가? 또 그분들은 언제 셋이신가? ... 성경이 말해 주는 것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셋,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면을 갖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셋은 구별되시지만 분리될 수는 없다. 더욱이 이 셋은 서로 안에 존재하신다. 첫째가 둘째 안에, 둘째가 첫째 안에 계시고, 둘째인 아들께서 셋째인 그 영과 하나이시며 동일하시다(고후 3:17).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영께서 단지 동시에 존재하신다면 여전히 분리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은 또한 서로 안에 존재하시므로 분리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삼일이신 이유이다. 그분은 바로 삼일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 중점들에 관해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앞선 시대의 성도들이 본 것을 이어받아 이 정도까지 보았다. 신성한 삼일성은 우주 안에서 비밀이다. 이 비밀은 우리가 신학적 논쟁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지로 체험 안에서 누리기 위한 것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86 년, 3 권,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 2 장, 416-418 쪽)

성경은 ... 또한 아들이 아버지이심을 계시한다(사 9:6, 요 14:7-11). 이 절들에서 주님은 그분과 아버지께서 하나이시라는 비밀을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하셨다(요 10:30). 그분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그분 안에 계신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그분을 볼 때 그들은 아버지를 보았고, 그들이 그분을 알 때 그들은 아버지를 안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또한 아들(마지막 아담)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것을 계시한다. 고린도전서 15 장 45 절 하반절은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라고 말한다. 마지막 아담은 물론 육체가 되신 주 예수님이시고, 생명주시는 영은 물론 성령이시다. 성령 이외에 결코 또 다른 생명 주시는 영께서 계시수 없다. 주님은 육체가 되시어 마지막 아담이 되셨고, 이후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의 주요 항목의 중점, 1 장, 21-2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86 년, 3 권,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 2 장;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 권, 성경 안에서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이상, 3 장

01/03 토요일

아침의 누림

엡 1:3-5, 7, 13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4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5 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7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그분의 피로 구속받고,

범죄가 용서되었습니다.

13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찍혔습니다.

갈 4:4-6

4 그러나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심으로써,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6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 주셨으며, 아들의 영은 “아바 아버지!”라고 외치십니다.

엡 4:4-6

4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5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입니다.

6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을 통과하여 계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신약에 따르면, 아버지는 많은 아들을 원하신다. 아버지의 관심은 아들의 자격에 있다. 이러한 아들들을 산출하시기 위해 아버지는 계속 자녀들을 낳고 계신다. 그분은 자녀의 수에 제한받지 않으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한 목적과 ...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선택과 미리 정하심은 그분의 목적에 따른 것이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런 다음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개시자와 창시자이심을 가리킨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선택과 미리 정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일한 목적, 곧 우리 아버지의 목적만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또한 아버지의 유일한 계획만 있어야 한다. 이것은 오직 한 분 아버지만이 창시자와 기원자가 되셔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시작하거나 창시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 중대한 문제이다. ...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죄와 육체와 자아와 타고난 생명과 옛 창조물과 죽음과 사탄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부정적인 모든것은 이미 종결된 것이다. ...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이 이미 종결되었다. (데살로니가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8, 76-7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창시하시는 분이시다. ...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시고 창시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 영 하나님은 ... 창시하시는 분도 성취하시는 분도 아니시다. 그분은 집행하시는 분이시다. 그영은 그분 자신을 위해서나 그분 스스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그보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창시하신 것과 아들께서 성취하신 것을 집행하시고 수행하신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과 아들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이 지금 그 영 안에 그리고 그 영과 함께 있음을 보아야 한다.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가 접촉하는 분은 그 영이시다. 이 영께서 아들이시며, 아들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를 갖는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 주시는 영이시라고 말할 수 있다. ...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사실상 우리는 삼일 하나님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 영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최종 완결이시다. 그 영은 우리에게 적용되고 도달하신 삼일 하나님이다. ...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은 우리의 체험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적용되신다. 그 영은 단지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자 그리스도이신 그 영이시다. 오늘날 우리의 체험에서 삼일 하나님은 바로 생명 주시는 영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영 안에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1 장 1 절에 그 영이 함축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교회가 삼일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삼일 하나님께서 계시되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주님의 인간 생활과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이 요구된다.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우리는 그 영께서 오시는 것을 본다.

삼일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이다. 삼일 하나님은 육체 되심과 인간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 안에서 그분은 구속을 성취하셨고, 옛 창조물을 종결하셨으며, 사탄과 죽음을 멸망시키셨다. 부활 안에서 그분은 새 창조물을 발아시키셨다. 이제 그분은 삼일 하나님의 최종 완결이신 생명 주시는 영이시다. 교회는 이러한 삼일 하나님 안에 있다. 교회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곧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분 안에 있는데, 이 생명 주시는 영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신다.(데살로니가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8, 82-83 쪽, 메시지 7, 74-7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8

01/04 주일

아침의 누림

요 14:1-3, 6, 16-20, 23-27

- 1 “여러분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십시오.
- 2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겠습니다.
- 3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여러분을 나에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여러분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 6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고 실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 주실 것이고,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 17 그분은 실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 18 나는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 19 잠시 후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지만, 여러분은 나를 볼 것인데, 이것은 내가 살므로 여러분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 20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 2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 24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 25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 이러한 말들을 여러분에게 하였습니다.
- 26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보혜사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 27 내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남겨 둡니다. 곧 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여러분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